

고금리에 얼어붙은 회사채… 기업들 은행 대출로 몰린다

5대 시중은행 대기업 대출 190조
회사채 발행 10년 만에 최저 수준
신용등급 낮은 기업 자금난 우려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다. 뉴노멀이 된 고금리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에서 대출 받아 운전자금과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당분간 기업은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을 더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까지 올린 데 이어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전망도 부담이다.

◆회사채 대신 은행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90조 3641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반년 새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중기대출 잔액은 682조 7204억원으로 지난해 말 674조 4262억원 보다 8조원가량 증가했다.



ChatGPT로 생성한 '발행금리 상승으로 인해 위축된 회사채 시장' 관련 이미지.

기업들이 앞다퉈 은행 문을 노크하는 이유는 회사채 시장의 높은 조달 금리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회사채 발행액은 67조 3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조 9574억원에서 약 10% 감소한 규모다. 이 가운데 순발행은 1조 853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조 7323억원보다 90% 급감했다. 이는 2016년(2조 489억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금리 상승은 회사채 발행 환경을 더 얼어붙게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

면 지난 16일 신용등급 AA- 회사채(무보증, 3년물) 금리(최종호가수익률)는 연 4.544%로, 연초 보다 연 3.459% 보다 높았다. 신용등급 BBB- 회사채(무보증, 3년물) 금리도 연 10.345%에 달한다. 발행 시장에선 투자자들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채권을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다. 시중 자금의 은행 유턴 움직임도 포착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예금·적금·요구불예금 등 소매예금 잔액의 총합을 알리는 총수신은 2252조 5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2163조 1712억원 대비 89조 408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6개월 만에 총수신 잔액이 4.1% 늘었다.

◆금리 오르면 더 부담

문제는 하반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하반기 전체 만기도래 규모는 총 26조 8519억원에 달하지만 글로벌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기울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2026년 하반기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0개 투자은행 중 JP모건, 비글레이스, 웰스파고, 노무라, TD뱅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7곳이 올해 중 연준이 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흐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예

고한 바 있다.

투자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금리를 좀 높여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도 빌릴 수 있지만, 등급이 낮은 기업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내놓은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 중 한계 기업 비율은 27.6%로 2017년 11.8% 대비 15.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한계 기업 비율은 9.5%포인트 오른 30.7%였다. 이어 프랑스는 5.5%포인트 오른 26.4%, 영국은 2.8%포인트 오른 22.4%, 독일은 2.3%포인트 오른 12.9%, 일본은 1.9%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한계 기업은 세전 이익(EBIT)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자 보상 배율 1 미만)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뜻한다. 한국 기업 4곳 중 1곳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내는 상태가 3년째 지속 중이라는 뜻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홈플러스 운명에 유통주 투자심리 '출렁'

경쟁사 이마트·롯데쇼핑 매출 개선
반사이익으로 주가 재평가 어려울듯

홈플러스의 향방이 국내 유통주 투자심리를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점포 축소에 따른 고객 이동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기존점 매출과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 사업과 계열사 부담까지 감안하면 반사이익만으로 주가가 재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이후 홈플러스 59개 점포가 문을 닫은 지역에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고, 전사 기존점 성장률도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봤다. 현재 영업 중인 67개 점포도 상품 구성이 크게 약화된 만큼 경쟁사로의 수요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기존점 매출이 2% 늘어나면 이마트는 연간 약 550억원, 롯데마트는 약 2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5년 연결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각각 18%,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가 쇼핑 카트로 막혀 있다. /뉴시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할 경우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합산 매출이 1조 4000억~1조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헌이익률 25%를 적용하면 영업이익 증가분은 약 3600억원이다. 점유율 확대와 함께 제조사와의 구매 협상력이 높아지는 점도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에서도 변화는 감지된다. 홈플러스

폐점 점포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일부 점포는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양사는 점포 리뉴얼과 자체브랜드(PB) 확대, 배송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유입 고객을 붙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미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연결 매출 6조 7671억원, 영업이익 177억원을 예상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74.2% 밑도는 수준이다. 할인점과 트레이더스의 성장에도 스타벅스와 온라인 사업 부진이 수익성을 눌렀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홈플러스의 퇴장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회생 가능성도 다시 나오는 분위기다.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지원하고 MBK파트너스가 전액 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다. 메리츠금융 3사의 이사회가 16일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코스닥 ETF 줄줄이 손실… 인버스만 수익

거래대금 급감에 상폐 공포 커져

코스닥시장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14.44% 하락하며 뒷걸음질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61.85% 오른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등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전개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이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5월 15조 6000억원에서 6월 10조원, 이달 들어 16일까지 6조 9000억원으로 줄어듦에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콤 ETF ETF CHECK에 따르면 이날 기준 'KODEX 코스닥150'의 1개월 수익률은 -23.54%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액티브 ETF인 ▲TIME 코스닥액티브(-22.99%) ▲KoaAct 코스닥액티브(-22.77%) ▲PLUS 코스닥150액티브(-23.00%) 등의 수익률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성과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같은 기간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가 각각 44.90%, 44.85%씩 떨어졌다. 이외에도 ▲RISE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45.03%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44.71% ▲KIWO

M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43.98% 등이 40%대 손실을 기록 중이다.

반면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70%) ▲KIWOOM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29%)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29%) ▲RISE 코스닥150선물인버스(-24.77%) 등은 같은 기간 수익률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에 베풀었던 투자자들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로만 쏠리면서 반등 기미를 되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AI, 반도체 등으로 쏠린 만큼 코스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코스닥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서학개미 이자 동학개미인 국내 개인 투자자 특성상 국내 증시에서 개인의 순매수는 글로벌 AI 테마에 부합되는 업종으로만 지속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는 국내외를 넘나들 수 있어 국내로 들어온 개인 자금의 순환매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아닌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한화투자, 美 디지털에셋에 300억 투자

캔톤 네트워크 생태계 합류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에셋에 약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디지털에셋은 골드만삭스, 미국예탁결제원(DTCC)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채택한 금융 특화 개방형 블록체인인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월 글로벌 금융

시장 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에셋'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했다.

앞으로 한화투자증권은 캔톤 네트워크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향후 디지털 자산 및 차세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캔톤 네트워크는 금융기관 특화 개방형(Permissionless) 블록체

인 네트워크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한계였던 자산 간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자산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문은 "디지털에셋의 '캔톤 네트워크' 인프라와 독보적인 기술력은 한화투자증권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신한 'MyPB 멤버스' 가입자 2만명 돌파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

신한투자증권은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 프리미어 MyPB 멤버스' 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 Premier MyPB 멤버스'는 '투자'는 공부다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금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

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고객은 투자 기초 학습부터 시장분석, 실전 투자 인사이트까지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PB와의 일대일 투자상담(My 핫라인), 전문가 초청 온라인 세미나(My 세미나), 신한 SOL증권 내 My 스킵 콘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